

SAMC | LAW REVISION

1. 베트남 중고 기계류 수입 규정 변경 안내

베트남에서 중고 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 결정문을 발표하여 현행 중고 기계류 수입 시행 규칙을 대체하는 법령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베트남 총리실에서 중고 기계류 수입 시행 규칙 (Circular23/2015/TT-BKHCHN)을 대체하는 총리 결정문 (Decision No. 18/N2019/QD-TTg)을 6월 15일부로 발효 예정이며 수입 적용 대상 HS CODE는 84류와 85류로 반드시 베트남 내 제조 및 생산목적을 위한 기계여야 하며 수입 금지 품목 (DecreeNo.69/2018/ND-CP)에 해당 하면 안된다.

[Read More](#)

2. 최빈개도국 벗어난 '적도기니' 특혜관세 대상 제외

국제연합(UN)이 아프리카의 '적도기니'를 최빈개발도상국 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적도기니를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빈개도국 졸업요건을 갖추고 유예기간 중인 5개국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 시한을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안을 5월 9일 입법예고했다.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1971년부터 최빈개도국 기준을 만들어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Read More](#)

3. 보세화물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물품 즉시반출 허용

보세화물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제도를 허용하는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수입하는 물품 외에 위험도가 낮은 물품도 전자통관심사(AI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5월 20일 발표하고, 같은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보세화물의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물품에도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을 허용함으로써 신속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美·中 무역협상,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갈등 격화

미국이 중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美·中 무역전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對中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産 5,745개 품목의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며, 5월 10일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부터 부과한다. 미국이 관세인상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실물경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Read More](#)

2. 미국 "수입차 관세 6개월 연기"...'한국산 면제' 시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발표문을 통해 유럽연합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검토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결정을 6개월 미루기로 하였다.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과 최근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Read More](#)

3. 'G2 분쟁'피해 中서 동남아로...국내기업 '수출라인' 흔들린다

'G2 분쟁'이 심화되면서 수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생산기지를 중국에 두고 있는데,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대비해 중국 내 생산기지를 폐쇄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수출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9일 발표한 '한국과 주요국의 대(對)중 수출 공급경로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수입 상위 5개국 중 한국의 대중 우회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대만(31.8%)에 이어 2위(24.9%)에 자리 잡았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연내 타결 목표' RCEP 협상 태국서 27일 개막

올해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RCEP) 제5차 회기간 협상이 27일 태국에서 개최된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윤종 FTA 정책관을 수석 대표로 정부 관계자 40 여명이 협상에 참석한다. 26일 산업부는 이번 협상은 2019년 연재 최종 타결을 달성하고자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회기간 개최되는 것이다. 상품, 투자, 원산지 등 일부 분과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한다.

[Read More](#)

2. 한·말련 및 한·필리핀 FTA, 연내 타결 목표로 '동분서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월 9일 제1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말레이시아 및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美·中 무역분쟁 등 대외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수출 감소까지 맞물려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언급했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신남방 정책 가속화를 위해 연내 타결 목표인 한·말레이시아 및 한·필리핀 FTA의 신속 타결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관계부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Read More](#)

3. 인도로 복사지 등 종이류 수출 시 관세율 '10 → 0%' 적용

인도로 복사지 등 종이류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앞으로 한·인도 CEPA에 따라 특혜세율을 적용받는다. 관세청은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등 종이류에 대해 한·인도 CEPA 특혜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치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이에 우리 수출업체가 인도로 수출하는 복사지, 전사지 등의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0%로 적용돼 우리 중소 수출업체 등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 품목을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연간 2억원 상당의 관세를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